

[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- 2017년 11월 19일 단톡방 보강 수업 내용]
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2, 노명환 교수님 : 오늘은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컨티뉴엄을 공부하겠습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2, 보영 : 안녕하세요 교수님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3, 노명환 교수님 : 우리 교재의 192페이지에 있고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3, 노명환 교수님 : 교재 191페이지부터 보기로 해요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3, 노명환 교수님 : 모두 반갑습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4, 노명환 교수님 : 자 192페이지 도해를 볼까요?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5, 초아 : 안녕하세요 교수님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5, 노명환 교수님 : 네개의 축선과 네개의 차원의 원으로 되어 있네요. 축과 차원이 만나는 16개의 접점이 있고요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7, 노명환 교수님 : 맨 위의 축선을 보면 증거 축선이 있고, 왼쪽으로 Identity 축선 (나는 이것을 기록 생산 및 관리 행위 주체 축선으로 의역)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8, 노명환 교수님 : 그 다음에 축선 이름들 볼 수 있죠? 네번째 축선이 뭐죠? 맨 뒤에 온 초아가 말해볼까요?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39, 노명환 교수님 : 초아 준비하고, 변선생님 말해줄까요?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0, 김인솔(Kim) :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!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0, 선영 : 기록관리생산및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0, 초아 : 늦어서 죄송합니다. 기록관리 생산 및 관리 입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0, 노명환 교수님 : 예. 앞으로 함께 축선 이름 등 다시 의역을 해보면 좋겠어요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0, 선영 : 행위가 빠졌습니다..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1, 소마미 : 늦어서 죄송합니다ㅠㅠ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1, 선영 : transaction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1, 노명환 교수님 : 예, 늦었지만 지금부터 잘 집중해주고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1, 노명환 교수님 : 변선생님 고맙습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2, 노명환 교수님 : 네개의 축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쿠누기 예나 선생, 네개의 차원 중에 첫번째 차원을 말해 줄 수 있어요?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3, 노명환 교수님 : 예나 선생 준비하고, 최민경이 말해줄까요?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4, 최민경 : 네 생산 입니다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4, 노명환 교수님 : 예. 누구 다른 사람, 두번째 차원 말해 주세요요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4, 양준호 : 획득입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4, 태현 : 획득입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박연희 : 획득 입니다 :)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선영 : capture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노명환 교수님 : 감사합니다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노명환 교수님 : 세번째와 네번째 볼 수 있죠? 조직화와 다원화.
- 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소마미 : 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초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김인솔(Kim) : 넵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회원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5, 태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6, 최민경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6, 노명환 교수님 : 자금 증거 축선과 획득 차원이 만나는 접점이 무엇인가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6, 송명배 선생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6, 노명환 교수님 : 모두들 답해 보세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태현 : Evidence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김인솔(Kim) : Evidence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김인솔(Kim) : 입니당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소마미 : 증거입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노명환 교수님 : 예. 좋아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7, 노명환 교수님 : 그럼 증거축선과 조직화 차원이 만나는 접점은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8, 선영 : archive입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8, 노명환 교수님 : 변선생님, 다시보기. 증거축선과 조직화 차원이 만나는 접점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9, 양준호 : 기능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9, 최민경 : organizational / individual memory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9, 초아 : organizational individual memory입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49, 도제문 : 늦었습니다 πππ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0, 선영 : organization indual memory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0, 노명환 교수님 : 예. 기관의 혹은 개인 기억입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0, 도제문 : 죄송합니다 ππ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0, 선영 : 타이핑이...πππ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0, 노명환 교수님 : 준호가 다시 봐주면, 기능은 조직화와 Transaction 축이 만나는 접점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1, 양준호 : 넵 교수님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1, 노명환 교수님 : 도제는 안녕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1, 선영 : 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2, 노명환 교수님 : 변선생님이 말한 Archive 는 Recordkeeping 축선과 조직화 차원의 접점. 이렇게 볼 수 있겠죠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2, 노명환 교수님 : 이렇게 16개의 접점을 볼 수 있겠죠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2, 선영 : 네

그렇습니다.습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3, 노명환 교수님 : 여러분들 앞으로 되도록이면 컴퓨터 앞에서 해요. 컴퓨터 자판이 훨씬 편리하니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3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3, 초아 : 네 교수님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3, 소마미 : 네!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노명환 교수님 : 증거축선이 다원화와 만나는 접점은 무엇인가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노명환 교수님 : 집단 기억이지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소마미 : 수집기억입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소마미 : 아이고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소마미 : ㅎㅎ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4, 소마미 : 네!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5, 노명환 교수님 : 개인 기억에서 집단 기억으로 변하네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5, 선영 : collective memory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5, 김인솔(Kim) : 넵!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5, 노명환 교수님 : 두번째 차원 3번째 차원은 증거에서 기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6, 노명환 교수님 : 그러면 증거축선이 첫번째 차원 생산과 만나는 것은 무엇이라 되어있나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6, 최민경 : 재현의 흔적 입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7, 김인솔(Kim) : Representational trace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7, 노명환 교수님 : 예. 이것을 우리는 재현의 흔적, 혹은 흔적이라 합니다. 업워드는 나중에 그냥 흔적이라 부릅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7, 김인솔(Kim) : 입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7, 김인솔(Kim)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노명환 교수님 : 자 그러면 증거축선에서 차원의 변화를 따라 흔적, 증거, 기억(개인), 기억(집단)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하네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노명환 교수님 : 이 점 동의해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태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김인솔(Kim)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소마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예나 SKY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초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도제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회원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최민경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8, 보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9, 송명배 선생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8:59, 노명환 교수님 : 컨티뉴엄 다이어그램은 연속적으로 기록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 등이 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1, 노명환 교수님 : 업워드 교수는 이 네개의 축과 네개의 차원 그래서 16개의 접점을 상징적으로 (나와 대화할 때는 서로 기호적이라 해요)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1, 노명환 교수님 : 무수히 많은 축선과 차원 그리고 저 16점을

보여준다고 말해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1, 노명환 교수님 : 이 점이 중요한데 이해가나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노명환 교수님 : 확인주세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도제몬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보영 : 네 이해됩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최민경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송명배 선생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2, 소마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회원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예나 SKY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김인솔(Kim)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초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노명환 교수님 : 그러면 199페이지 봐줄래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3, 소마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4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4, 노명환 교수님 : 축선과 차원이 무수히 많고, 접점이 무한대로 무수히 많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4, 선영 : 면이 됩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5, 노명환 교수님 : 199페이지 도해 봐주고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5, 노명환 교수님 : 결국 무엇이 되나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5, 김인솔(Kim) : 구가 됩니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5, 노명환 교수님 : 예. 면이 됩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6, 김인솔(Kim) : 죄송합니다... 제가 잘못 읽어서ㅠㅠ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6, 노명환 교수님 : 구가되어야 하는데, 이 점은 앞으로 설명할게요. 구가되는 측면을 '성리학적 구성주의'로 노명환교수가 설명하는 것인데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7, 김인솔(Kim) : 넵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7, 노명환 교수님 : 여기까지 하고. 192페이지 도해로 다시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8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8, 노명환 교수님 : Recordkeeping 축선과 첫번째 차원이 만나는 접점이 무엇인가요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8, 노명환 교수님 : 대답부탁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8, 양준호 : 맥락이 없는 문서입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9, 노명환 교수님 : 예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9, 선영 : document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09, 노명환 교수님 : 그런데 업워드는 이것을 archival document 라고 해요. 앞으로 아카이브가 될운명의 현재는 맥락이 없는 문서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0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0, 노명환 교수님 : 두번째 획득 차원과 만나서의 접점은?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0, 선영 : records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0, 도제몬 : records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1, 소마미 : 기록입니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1, 보영 : 맥락을 갖춘 기록입니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1, 최민경 : 기록 records 입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1, 노명환 교수님 : 예. 소통이 이루어진 결과, 맥락이 있는 기록이 되었어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선영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회원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김인솔(Kim)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박연희 : 네:)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송명배 선생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최민경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소마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도제문 : sp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도제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태현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에나 SKY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2, 노명환 교수님 : 담당자가 기안한 문서를 맥락없는 도큐먼트라고 하면 이제 계정 과장 등이 결제를 한 records 가 되었어요. 그래서 증거축선에서 보면 증거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3, 소마미 : 네!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3, 양준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3, 김인솔(Kim)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3, 노명환 교수님 : 조직화의 차원과 만나서, 어떤 접점?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4, 선영 : archive입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4, 보영 : 비현용 기록입니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5, 노명환 교수님 : 예. 그 문서가 (기록이) 생산 소통된 기관내에서 보존활용되는 것으로, archive 로 표하고 있습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5, 노명환 교수님 : 예. 생애주기 이론에 의하면 비현용기록입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6, 양준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6, 초아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노명환 교수님 : 그런데 이 기록이 기관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 활용되면 그것을 archives 로 사회적 기록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. 그래서 증거축선에서 보면 집단 기억을 만들지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선영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최민경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송명배 선생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도제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7, 에나 SKY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회원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박연희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김인솔(Kim)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소마미 : .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노명환 교수님 : Identity 축선과 Transction 축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업시간 (특강 지나고) 설명할게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보영 : 넵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초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양준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8, 최민경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9, 김인솔(Kim) : 넵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9, 태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19, 노명환 교수님 : 축선과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이 변화되듯이, 인간이 변화되듯이 기록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변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축선과 차원으로 표시했습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0, 노명환 교수님 : 그런데 여기에서 변한다는 것을 구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?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업워드는 2주전 설명한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했습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노명환 교수님 : 시간과 공간의 변화는 기록과 기록환경의 구조와 아키비스트(레코드메니저)라는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 집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양준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도제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태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소마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2, 송명배 선생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3, 회원님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3, 노명환 교수님 : 세상에서 개인은 소멸하지만 인간은 계속 생존하고 있듯이, 여기에서 아키비스트는 개인의 생을 넘는 일반성을 말합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3, 노명환 교수님 :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3, 소마미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3, 최민경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4, 김인솔(Kim)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4, 노명환 교수님 : 191페이지로 와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4, 노명환 교수님 : 컨티뉴엄 이론은 생애주기 이론에 대한 대안이라 했어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4, 선영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5, 선영 : 전자기록의 도입으로 생겨난걸로 알고 있습니다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5, 노명환 교수님 : 생애주기론에서는 기록이 생산되고 보존 활동되다가 수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데,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 단계를 설정하고 있어요. 두 단계 사이에는 이관 작업으로 연결되어요.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6, 초아 : 네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6, 선영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6, 소마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6, 최민경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6, 노명환 교수님 : 예. 그런데 전자기록의 도래와 함께 이관이 필요없고, 현용, 비현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. 연속체 속에서 이해되고 활용되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28, 노명환 교수님 : 여기에다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도입됩니다. 푸코의 에피스테메를 생각해 보세요. 업워드교수에게 미셸 푸코는 너무나 중요한 사상가입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0, 노명환 교수님 : 기록의 성격, 사회적 역할, 가치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만큼이나 변한다고 보게 된 것이죠. 에피스테메의 변화만큼 변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여기서 발상이 그런 것이지 굳이 에피스테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. 똑 같은 기록이 증거이고 기억이고, 집단 기억으로 구성됩니다.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2, 선영 : 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소마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초아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노명환 교수님 : 똑같은 기록이 맥락없는 도큐먼트, 기록, 아카이브, 아카이브즈가 됩니다. 물론 결재라는 변화가 있지만. 보다 더 많은 변화상이 있는데. 상징적으로 처리하고. 업워드는 그 변화상을 사무실에서 일어난 문서생산이 우주로 까지 이어진다고 말해요. 그만큼 연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지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양준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김인솔(Kim)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선영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최민경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태현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3, 에나 SKY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노명환 교수님 : 이 논문을 더 잘 읽어주겠어요. 특강 지난 주에 잘 설명할게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선영 : 알겠습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회원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보영 : 넵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김인솔(Kim) : 넵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박연희 : 네~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송명배 선생님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초아 : 넵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소마미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4, 최민경 : 네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노명환 교수님 : 아쉽지만, 오늘 여기까지 하고. 한주간 잘 지내요. 현대기록학에서 컨티뉴엄적 사고는 너무나 중요해요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태현 : 네. 알겠습니다.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초아 : 네 교수님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양준호 : 네 교수님

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도제문 : 네네 감사합니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노명환 교수님 : 잘 지내요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회원님 : 감사합니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선영 : 네. 감사합니다. 교수님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에나 SKY맘 : 네. 감사합니다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최민경 : 네 감사합니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5, 송명배 선생님 : 감사합니다. 교수님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보영 :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노명환 교수님 : 한가지, 이러한 변화를 공존장의 소통과 연결
 해 볼 것인데, 하버마스의 공론장 , 그리고 내 논문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 잘 읽어주어요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회원님 : 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소마미 : 네!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최민경 : 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6, 선영 : 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초아 : 넵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노명환 교수님 : 안녕. 힘들지만 즐겁게 멋지게 공부하고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에나 SKY맘 : 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태현 : 네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선영 : 네.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7, 보영 : 네 ~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8, 도제문 : 네!!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8, 김인솔(Kim) : 넵!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8, 초아 : 넵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39, 최민경 : 네
 2017년 11월 19일 오후 9:41, 박연희 : 감사합니다 교수님!
 2017년 11월 20일 오전 9:07, 노명환 교수님 : 어제 열심히 함께 공부해 주어서 고맙고. 컨
 티뉴엄 부분 다시 철저히 읽어주면 해요. 미국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컨티뉴엄 도해를 설명해
 놓았는데 잘 읽어주면 해요. 현대 기록학을 사유하는 기본의 틀로서 레코드 컨티뉴엄을 이해
 해 보기로 해요.